

中 부채 과도, 부동산 거품... '코로나 쇼크' 견딜수 있을 거라 장담 못해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본 신종코로나 파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사태를 거치며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겁니다. 한국이 중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광우(71)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7일 오전 1시간이 훌쩍 넘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한 이슈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 리스크다.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1986~1998년)과 국제금융센터 원장(2000년), 외교통상부 국제금융대사(2007~2008년) 등을 거치며 중국의 고도성장을 지켜봤던 전 이사장은 지금을 중국 정치·경제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신종코로나 충격을 계기로 중국이 시험대에 서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악재)을 맞을 수 있어요. 성장동력이 떨어지는데 돈을 더 풀 수 없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지요. 더 큰 문제는 중국 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신종코로나의 여파는 어떻게 보는가.

“중국 경제부터 봐야 한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2%대(전년 동기 대비)로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중증후군)때보다 후유증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때 중국 경제가 연10% 이상씩 성장했던 청년이었다면, 지금은 연6%도 안 되는 중장년이다. 청년이 맞는 편지와 중장년이 맞는 편지의 충격이 같을 수 없다.”

-충격이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경제가 활력이 넘칠 경우 내·외부 충격이 오면 흡수하고도 남는다. 2003년 사스 때도 금방 회복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와 금융 부실화로 체질이 나빠졌다. 충격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인민은행이 돈을 풀고 있다.

“정책 딜레마다. 지난달 중국의 물가 상승률은 4.5%였는데(올해 1월 수치는 5.4%로 10일 발표), 국제금융계에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 어쩔 수 없다. 얼마 전 인민은행이 오죽 급했으면 200조원 넘게 긴급 자금을 풀었겠나. 돈을 풀면 풀수록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다.”

-중국은 국가부채가 큰 리스크란 지적

정치·경제 변곡점 맞은 중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우려

美 경제, 코로나 영향 거의 안받아 4차산업혁명 기술주 호실적에 트럼프 기업친화 정책 빛 받해 中과의 기술 격차 더 벌어질 것

프랑스 마크롱 '연금개혁' 주목 한국 정치권선 논의조차 안해

전 이사장은... △1949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경영학 박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 교수 △세계은행 선임연구위원 △국제금융센터 원장 △초대 금융위원장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 많다.

“그렇다. 국가부채가 너무 많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정책 여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빛으로 쌓아올린 성장이란 의미인가.

“(국가와 기업의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 중국 정부는 2010년 중반대 의도적으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추진했다. 말이 좋아서 부채 축소이지, (금융 건전성을 쫓으려) 대출을 줄이면 투자와 소비 모두 감소하는 충격이 오게 마련이다. 그렇게 성장률이 6%대로 쭉 떨어지고 여기저기 불만이 터져 나오다 보니,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대응은 다시 돈을 푸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연 7~8%는 성장해야 인민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공산당이 지지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도 중국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S&P가 올해 중국 성장률이 4%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등 구조적 리스크가 너무 많다. 이 와중에 물가는 치솟고 있으니, 자칫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물가 잡으려 긴축하자니 경기가 얼어붙고

그렇다고 돈을 더 풀자니 물가는 폭등하는, 그런 정책 대안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다.”

-이 와중에 미국 경제는 호황인데.

“최근 아마존, 애플, 트위터, 페이스북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주의 호실적을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친화적인 정책(법인세 인하 등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 두 나라간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최근 미국 증시 분위기도 좋다.

“신종코로나 공포감이 있지만 미국 기업들 자체가 좋기 때문이다. 20년 전 닷컴버블 때처럼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당분간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이 넘치는데, 초호황인 미국 경제를 투자자들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경제는 신종코로나 충격이 없나.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분석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1.00%포인트 떨어질 때의 각 나라별 파급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미국은 0.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데, 그래도 주목하는 나라가 있나.

“프랑스를 유심히 보고 있다. 프랑스가 오랫동안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건 누구나 안다. 시민혁명으로 나라를 일으켜서 그런지, 노동조합의 입김이 과도하다.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면에 내건 게 그 판을 뒤엎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작한 게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이다. 10%가 넘는 프랑스의 실업률이 최근 8%대로 하락했다.”

-요즘 연금개혁에 대한 저항이 크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전세계 어디든 중진국 이상 고령화 국가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연금개혁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노후에 받을 돈을 줄인다고 당연히 반발할 것이다. 좋아할 사람은 나중에 그 짐을 덜 짊어질 젊은 친구들인데, (고령층에 비해 당면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 연금개혁 사안을 대하는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계속 미뤄진 거다. 한국 정치권도 지금 연금 문제는 전혀 얘기를 안 한다.” 김장남 기자 jungkim@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신종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DB

“韓, 中 의존 심각... 美·日과 통화스와프 재개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어디일까.

최근 파이낸셜타임스가 분석한 중국 경제 위축의 나라별 파급효과 추정은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충격이 같은 중화권의 홍콩보다 클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00% 하락한다면 한국은 0.3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홍콩(0.30%포인트), 일본(0.20%포인트), 베트남(0.20%포인트), 싱가포르(0.19%포인트) 등보다 큰 수치다. 미국(0.04%포인트), 영국(0.02%포인트), 프랑스(0.07%포인트) 등 서구 선진국의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같은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한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 문제”라고 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그렇다고 했다.

“국제금융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와 한 블록에 집어넣습니

코로나 확산, 한국에 가장 큰 충격 시진핑 리더십 흔들리는 마당에 중국에 왜 저자세인지 이해 안돼

통화스와프, 정상간 신뢰 확실히해야

통화스와프

❓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에 왔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 '외화 안전판'이다.

다. 경제적인 밀접도를 크게 본다는 방증이지요. 원화 가치가 주로 위안화를 따라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충격이 오면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요. 중국 의존을 벗어나야 해요.”

전 이사장은 이를 단순히 경제 문제로 보지 않았다.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신종코로나 사

태로 '시진핑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마당에 중국에 왜 저자세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 일본과 동맹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일본과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이사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첫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때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한·미 동맹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많고 일본과 관계는 역대 최악입니다.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정상간 신뢰가 확실히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면 기축통화국인 미국,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역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관계가 얼어붙으며 2015년 2월 이후 통화스와프가 끊긴 상태. 통화당국은 협상 기회를 엿보곤 했지만 정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미국과는 금융위기 이후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 김장남 기자